

본회, 창립 23주년 기념식 성료



- 홍보부 -

본회는 협회 창립기념일인 지난 12월 19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동용 회장, 최상백 부회장, 기정도 부회장, 이명복 부회장, 김재철 부회장 그리고 대의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창립 23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.

이번 기념식에서는 노영한 전무가 협회연혁을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였으며, 이어서 지역 양돈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고, 회원 상호간의 친목강화와 협회조직 발전에 기여가 큰 김인식 이사, 윤주성 이사, 박동래 전 부천시부장, 이영춘 고성지부장에 공로패를 수여하였다.

한편 전동용 회장은 창립 23주년 기념사를 통하여 "이번 23주년 기념 행사는 그 어느때보다 양돈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만큼 남다른 감회가 크다"고 말하고, "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, 이제는 피를 깎는 각오로 양돈업에 임해야 한다"고 말하였다. **養豚**



▲전동용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인 만큼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자고 하였다.



◀전동용 회장(좌측)이 이영춘 고성지부장에 창립기념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다. 그 외에 김인식 이사(좌에서 두번째), 윤주성 이사, 박동래 신애원 농장 사장이 공로패를 수여받았다.



창립 23주년 기념케익 절단 모습▶



◀창립 23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최상백 부회장이 양돈협회의 발전을 위해 건배를 외쳤다(좌로부터 이명복 부회장, 최상백 부회장, 전동용 회장, 노영한 전무).



흥겹게 음식을 나누는 모습▶